



치악산에 얽힌 전설들

치악산의 전경

용이
살던
연못에
대웅전이
들어서
구룡사
(九龍·龜龍
寺)

학 같은 노스님 한분이 절자리를 구하느라 치악산을 찾았는데 무착대사(無着大師)였다거나 의상대사였다기도 하는 이 스님이 구룡골에 이르자 동쪽으로는 주봉인 비로봉이 솟아 있고 다시 천지봉의 산줄기가 앞을 가로지르는데다 계곡 또한 아름다워 절을 세울만한 곳이긴 하나 대웅전을 세우려면 앞의 연못을 메워야 되는데 이 연못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연못을 메우자니 모처럼 용들이 사는 것을 쫓아야 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자 용들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쪽의 뜻에 따르기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해서 벌어진 내기에서, 먼저 용들은 연못에서 하늘에 치솟아 뇌성벽력과 함께 우박같은 비를 쏟아놓자 이 바람에 근처의 산들은 삼시간에 물에 잠기니 대사도 함께 우물속에 빠져 죽는가 했으나 뜻밖에도 비로봉과 천지봉 사이에 배를 건너 매놓고 배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였다.

낮잠에서 깨어난 대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용들에게 “이제 내가 조화를 부릴것인즉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보라”고 당부한 다음 부적 한장을 그려 연못속에 넣자 얼마 안되어 연못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오르며 큰 연못의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뜨거워 견디지 못한 용들은 뛰쳐나와 한달음에 동해바다로 달아나고 말았는데 이 아홉마리 용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미처 달아나지를 못하고 근처의 조그만 못으로 옮겨 앉았다.

용들이 달아난 후 대사는 못을 메우고 지금의 구룡사 대웅전을 지었으며 한편 뜨거운 물에 쫓겨 달아난 용들은 다급한 나머지 구룡사 앞산을 여덟개로 쪼개놓으며 도망했다 해서 지금도 동해로 향한 능선은 여덟개의 골이 나 있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눈먼 용은 구룡사 앞의 용소에서 오래 살다가 여름 장마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한편 ‘거북구(龜)’자 구룡사(龜龍寺)가 된 유래로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져 오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구룡사도 성쇠를 반복하게 되었는데 구룡사가 형편이 기울어져서 폐찰의 위기에 있을 때 어느 도인 한 사람이 절에 들러서 주지에게 이르기를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 서 있는 거북바위를 파내거나 아니면 등에다 구멍을 뚫어서 혈을 끊으면 절이 다시 번창할 것이다 하자 주지는 이 말대로 석수를 시켜 거북바위를 쪼개냈건만 번창하기는 커녕 신도가 더욱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노승이 찾아와 절의 성운(成運)을 지켜준 거북을 죽여버렸다면 이름이나마 「아홉구(九)」자 대신 「거북구(龜)」로 고쳐주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하여 지금의 구룡사(龜龍寺)란 이름은 이때부터 고쳐부르게 된 것이라 한다.

평의 보은에서 얻은 치악산

치악산의 전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날짐승에 관한 보은설(報恩說)에는 변함이 없고 “평 치” 자가 쓰이게 된 연유에는 그럴듯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경상도 의성(義城)땅의 한 나그네가 과거길에 올라 적악산(赤岳山)기슭 오솔길을 걷고 있었는데, 때마침 평

을 휘감고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발견, 측은히 여긴 나머지 구렁이를 죽여 뿔을 살려주고는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여 걸어가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외딴 산골의 불빛을 찾아 하루저녁 쉬어가기를 청한 끝에, 아리따운 여인의 마중과 정성스런 저녁까지 대접받았다.

한밤중에 여인은 구렁이로 변신해서 나그네를 휘감고 죽은 남편인 숫구렁이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만약에 산 윗쪽의 상원사에서 동트기 전에 세번 종소리가 울리면 살려주겠노라 했지만, 황폐되진 오래인 그 절에서 새벽녘에 종소리가 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오직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기적처럼 먼데서 「땀 ~ 앵」하는 종소리기 들려오고, 이윽고 또 「땀 ~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땡」이렇게 분명히 종소리가 세번 울리자 구렁이는 몸을 풀고 자취를 감춰버려 나그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절을 찾아간 나그네는 종각밑에 두마리의 뿔이 피투성이가 된채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새벽의 종소리는 이 뿔들의 보은의 종소리였음을 알게 되니

그로부터 적악산은 '치악산'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도 이 바위 위의 범당벽에는 나그네의 몸을 구렁이가 감고 있는 그림과 뿔이 날아들어 머리로 종을 치는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용마암(龍馬岩)

치악산 남대봉기슭의 상원사(上院寺)는 치악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절로 해발 1,100m에 위치하여 삼복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자지 못할만큼 싸늘하며 모기 등 날파리가 살지 못한다.

절은 3백여평 남짓한 바위 위에 세워졌으며 그 앞엔 40여m나 되는 벼랑으로 이어져 있는데 석함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은 그저 신비롭기만 하다.

그런데 그 벼랑위 바위 끝에 말발자국 형태와 사람의 손가락 자국처럼 패인 곳이 있어 이에 얽힌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으니 이름하여 「용마바위」라는 것이다.

치악산 상원사에서 동남편으로 40리쯤에 제천땅 백련사(白蓮寺)가 있는데 이절의 주지 스님은 여자를 중

아해서 상원사 주지까지도 겸하면서 백련사에는 본처를, 상원사엔 소실을 각각 두고 세속적인 재미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던 중 주지스님이, 상원사에 가는 날이 찾아지자 백련사의 본처는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아보고서 상원사에 소실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질투심으로 눈에 쌍심지가 돌아 궁리끝에 상원사와 백련사를 왕래하며 타고 다니는 용마의 진을 빼 버려야겠다고 작심하고 되도록 용마에게 죽만을 먹였더니, 한번 뛰었다 하면 천리도 마다 않는 용마였지만 어느날 스님을 태우고 상원사로 달리는 용마가 예사롭지 못하자 속사정도 모르는 스님은 용마에게 더욱 채찍질만 호되게 내리쳤다.

주인의 채찍을 맞은 용마는 기를 쓰고 상원사까지 이르렀으나, 그만 바위에 턱을 댄채 거꾸러지고 말았다.

이바람에 스님은 용마등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바위에 손을 짚었고, 말은 앞발을 디딘 채 그 바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벼랑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스님은 이것이 큰 부인의 소행이었음을 알고

소실과 상원사에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이 때 스님의 손자국과 용마의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고, 말이 떨어지며 흘렀다는 핏자국이 남아있어 후세 사람들은 이 바위를 「용마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이인직과 소설 「치약산」

치약산이 근래에 와서 더욱 유명해진 것은 신문학소설가 이인직이 쓴 「치약산」이 나오기 부터이다.

단구(丹邱)마을에 사는 세도가 홍참의는 서울 양반 이판서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시어머니인 김씨부인이 새며느리를 몹시 학대하였다.

남편되는 홍철식은 일본에 유학할 것을 결심하였으나, 완고한 홍참의의 반대로 이씨부인에게만 몰래 알리고 동경으로 떠나버리자 홍참의는 개화꾼인 사돈 이판서를 의심하고 하인을 서울로 보내 아들을 찾아오도록 하지만, 서울 가서 허탕친 고무쇠는 그냥 돌아가면 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홍계를 꾸미기로 한다.

마침 송도(개성)부호의 아들 최치

운이란 자가 치악산으로 인삼을 사러와 여러날 묵다가 홍참의 며느리가 일색인줄 알고 계집종 옥란을 꼬여 돈을 주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옥란은 남편인 고무쇠와 짜고 시어머니인 김씨부인을 가담시켜 이씨부인을 음행으로 몰아 홍참의에게 알려 치악산으로 내쫓아 버리고 미리 계획한 대로 최치운이 나타나 욕을 보이려다 장포수의 총을 맞고 쓰러진다.

한편, 이씨부인의 하녀 검홍은 선교꾼에게서 이씨부인이 금강산으로 간 것을 알아내고, 서울 이판서 댁을 찾아가 서로 상의하여 한가지 계책을 마련한 다음 원주로 내려와 그것을 실행하는데, 원주 홍참의댁에서는 변이 일어났으니 매일밤 귀신이 나타나고 홍참의댁이 망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아무리 굿을 하고 경을 읽어도 귀신은 없어지지 않자, 홍참의는 집을 떠나 산속을 지나다 우연히 우물에 거꾸로 빠진 여승을 발견하고 들쳐업고 들어간 곳이 검홍의 거처여서 여승 즉 이씨부인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마침내 홍참의는 자기 아내인 김씨부인의 악행을 알게 된다.

한편 홍철식은 일본에서 학교를 졸

업하고 돌아와 기울어진 가산을 정리하여 서울로 올라 왔으나 차마 처가에 갈 면목이 없어 그냥 지내는데 이 판서가 재혼을 강권하여 장가를 들고 보니 본 마누라인 이씨부인이었고 아들내외와 다시 만난 김씨부인은 죄를 뉘우쳤으며 집안에는 다시 웃음과 기쁨이 찾아들게 되고 이씨부인은 아들을 낳고 홍철식은 가평군수가 되어 내내 행복하게 잘 산다 - - 는 즐거리다.

